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기업들, 2020년 이래 가장 큰 폭 해고
- WSJ: 1월에 미 무역적자 34%나 늘었다
- YahooFinance: 미 노동시장 여전히 견조...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 YahooFinance: 필라 연준 총재, “미국 경제에 경고 신호 나타나”

#### [미국 금융]

- Bloomberg: 트럼프 관세 정책이 글로벌 환율에 의미하는 것은

#### [트럼프 행정부]

- NYT: 트럼프의 멕시코 캐나다 25% 관세 면제 전품목으로 확대 검토
- WSJ: 미 주요 시장들, “친 이민 정책이 오히려 범죄 감소”

#### [오일]

- WSJ: 미국 원유 재고량, 예상보다 큰 폭 증가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AI, 광고 구매 시장 지배한다...마케터의 의사와는 무관하다
- WSJ: 메이시, 올해도 매출 감소 전망
- Bloomberg: 홈디포, 온라인 고객 문의 답변에 AI 활용한다
- WSJ: 세븐일레븐, 미국 내 점포 분할 및 인수 방지위해 자사주 매입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Employers Announce Most Job Cuts Since 2020 Amid DOGE Layoffs**

#### **미 기업들, 2020년 이래 가장 큰 폭 해고**

- 미 고용주들이 2월 들어 팬데믹 초기 단계 이래 가장 빠르게 감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가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하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들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목요일 관련 조사 기관 Challenger, Gray & Christmas에 따르면 2월 발표된 일자리 축소 건수가 17만 2천7개로 작년 동월에 비해 103% 증가했고 지난 2020년 7월 이래 최고 폭이다.
- 이 같은 해고 건수 중에 연방 공무원이 6만 2천 건으로 큰 폭을 차지했고 소매업과 기술 분야도 큰 폭으로 해고됐다.

## **WSJ: U.S. Trade Deficit Grew 34% in January**

### **1월에 미 무역적자 34%나 늘었다**

- 미국의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1월 미국의 무역 흑자가 급등했다.
- 수입은 10% 늘어난 4천12억 불인 데 반해 수출은 1.2% 증가에 머물러 2천6백98억 불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자 폭은 1천3백14억 불로 12월의 8백81억 불보다 34%나 증가했다.
- 이는 많은 기업들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전에 제품을 미리 수입하기 위한 노력 때문이라고 다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분석하고 있다.

WSJ 기사

## **YahooFinance: The number of Americans filing for jobless benefits falls as labor market remains sturdy**

### **미 노동시장 여전히 견조...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 미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가운데 지난주 미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감소했다.
- 3월 1일에 끝나는 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건이 줄어든 22만 1천 건을 기록했다. 이는 예상치 23만 6천 건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다.
- 실업수당은 해고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는데 최근 수년 동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건에서 25만 건을 유지하고 있다.
- 4주 평균치는 2백50건 늘어난 22만 4천2백50건을 기록했다. 연방 정부효율부의 주도로 해고된 연방 공무원 해고 건수는 향후 관련 보고서에서 집계될 예정이다.

YahooFinance

## **YahooFinance: Fed's Harker says warning signs are emerging for the US economy**

### **필라 연준 총재, “미국 경제에 경고 신호 나타나”**

- 필라 연준 총재인Patrick Harker는 현재까지 좋아 보였던 미 경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특히 소비자 부문의 부담과 인플레이 전망의 리스크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실업률도 낮고 성장률도 유지되고 있지만 소비자와 비즈니스 섹터에서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그는 물가 압력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플레이 위험 리스크가 있다며 “소비자 부문의 부담 중에 특히 경제적으로 약한 계층이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미국 금융]

### **Bloomberg: What Trump's Tariffs Mean for Global Exchange Rates** 트럼프 관세 정책이 글로벌 환율에 의미하는 것은

- 미국의 관세에 따른 글로벌 교역 패턴의 변화가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은 물론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 투자은행과 브로커들은 환율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국경 간 교역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 환율 노출을 해지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 캐나다와 멕시코 통화가 트럼프 관세 조치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바로 최근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유예한다고 발표되면서 이들 화폐가 반등할 수 있다.
-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2월 초 이래 지난 2년간 최고치를 보였다. 이는 트럼프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상승과 연준 금리 인하 중단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었다.
- 그러나 현재 미국의 경제지표가 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경제 전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3월 초 현재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 위안화의 경우 중국정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여파를 막고 이미 약세를 보이는 경제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위안화를 절하시킬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한편 인민은행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관세 전쟁 동안에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해 위안화 약세를 허용했다.

Bloomberg 기사

## [트럼프 행정부]

### **NYT: Trump to Pause Auto Tariffs for One Month as Other Levies Continue**

트럼프, 멕시코 캐나다 25% 관세 중에 자동차는 한 달 유예  
오늘 발표에 전 품목으로 한 달 유예 확대 검토

-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산에 부과하는 25% 관세 중 자동차의 경우 한 달 유예한다고 수요일 밝혔다.
-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트럼프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3개사와 논의했고,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통해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한 달간 관세 부과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3개사는 GM, 포드사, 스텔란티스사다.

- 대변인은 한 달 유예를 결정한 이유는 이들 미 자동차사가 자동차 생산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도록 촉구하는 의미 때문이라고 밝혔다.
- 그런데 오늘 목요일 연방 상무부 장관에 따르면 25% 관세 1개월 면제를 자동차에서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 관련 웹사이트 기사는 아래 YahooFinance 클릭

NYT 기사

YahooFinance 기사

### **WSJ: Mayors Tell Congress Pro-Immigrant Policies Reduced Crime** 미 주요 시장들, “친 이민 정책이 오히려 범죄 감소”

- 민주당 계통의 보스턴, 시카고, 덴버, 뉴욕시 시장은 연방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연방 이민 정책 당국과 협력을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 범죄 개선의 열쇠가 된다고 말했다.
-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와 공화당이 불법 이민자, 범죄 이민자들의 추방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 이들 시장은 “불법 체류자들의 위험이 과장된 것인데 이민 증가와 폭력 감소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한편, 트럼프 하의 이민 관리 당국은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적인 영장 없이 연방 구금 시설에 이송하도록 시와 주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의 석방 기한을 늦추면서 연방 구금 시설로 이송토록 하고 있다.

WSJ 기사

[오일]

### **WSJ: U.S. Crude Oil Stockpiles Rise More Than Expected** 미국 원유 재고량, 예상보다 큰 폭 증가

-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 원유 재고가 360만 배럴 증가하며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증가량은 분석가들의 예상치(20만 배럴 증가)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 정제시설 가동률은 85.9%로 전주(86.5%) 대비하락했으며, 정제 투입량도 하루 34만6천 배럴 감소했다. 휘발유 재고는 예상보다 크게 140만 배럴 감소했으며, 경유 재고는 130만 배럴 줄어들어 증가 예상과는 반대 흐름을 보였다.
- 뉴욕상업거래소(Nymex) 원유 인도 허브인 오클라호마 쿠싱의 원유 재고는 110만 배럴 증가했다. 반면, 미국 원유 생산량은 하루 1,350만 배럴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AI Will Soon Dominate Ad Buying, Whether Marketers Like It or Not**  
AI, 광고 구매 시장 지배한다...마케터의 의사와는 무관하다

- 구글, 메타, 틱톡, 아마존, 핀터레스트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AI 기반 광고 구매 및 계획 도구를 확대 도입하고 있다. 이 도구들은 광고주가 예산과 목표를 설정하면 알고리즘이 광고 위치, 타겟층, 표시 방식 등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많은 마케터들은 AI 광고 도구가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제공하지만, 타겟층과 광고 게재 위치, 수행 결과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 그럼에도 AI 광고 도구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메타의 Advantage+ 쇼핑 도구 사용률은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 광고 산업 전문가들은 기술 기업들이 AI 광고 도구를 지속 발전시키는 가운데, 광고주의 이익과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SJ: Macy's Sees Sales Dropping Again This Year**  
메이시, 올해도 매출 감소 전망

- 메이시스는 2025 회계연도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0억 달러 감소한 210억~214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관세 부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 전망 등 경기 불확실성 속 고급 브랜드 고객까지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경영진은 설명했다.
- 메이시스는 매출 개선을 위해 판매 인력 확충 및 핵심 매장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150개 매장 폐점 계획 중 64곳을 이미 폐쇄했다. 한편, 1억 5천 백만 달러 규모 회계 부정 사건으로 투자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Bloomberg: Home Depot Turns to AI to Answer Online Shoppers' Questions**  
홈디포, 온라인 고객 문의 답변에 AI 활용한다

- 홈디포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웹사이트에서 특정 제품과 프로젝트에 대한 고객 문의 답변에 도움을 주는 도구를 도입했다. 향후 디자인 아이디어 제공, 제품 비교, 추천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 홈디포는 AI를 활용해 제품 리뷰 요약 등 다양한 기능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전문 계약업자 및 비즈니스 계정 사용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대형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홈디포는 전문 시공업자 대상 제품 판매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WSJ: 7-Eleven to Split U.S. Stores and Buy Back Shares to Prevent Takeover

### 세븐일레븐, 미국 내 점포 분할 및 인수 방지위해 자사주 매입

- 일본 Seven & I Holdings는 미국 내 7-Eleven 운영 법인을 별도 상장하고, 2030년까지 최대 13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캐나다 Alimentation Couche-Tard의 470억 달러 규모 인수 시도를 저지하고, 미국 내 7-Eleven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Seven & I Holdings는 미국 지사의 CEO 최초로 미국인 Stephen Hayes Dacus를 신규 선임하고,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과 54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체결, 슈퍼스토어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편의점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 미국 지사 CEO는 미국의 7-Eleven이 일본식 고품질 음식 모델을 도입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본 수준의 음식을 미국 고객에게 제공한다면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7-Eleven은 신선식품 품질과 공급망에서 강점을 보이며, 일본 내에서는 편의점이 재난 대비 인프라로도 평가받고 있다.

WSJ 기사

### [보고서]

## JP모건도 골드만삭스도 경고... 커지는 미국 'R의 공포' 관세전쟁 미국 내 최대 피해자는 철강 등 2차 제조업 분석도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과 여러 경제지표 약화로 인해 미국 경제에 경기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월가 주요 금융사들이 경고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의 경기분석 모델에서 4일 기준 경기침체 확률은 31%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의 17%에 비해 거의 두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5년 만기 국채 가격이나 주요 금속 가격 지표, 소형주 주가 지표로만 볼 때는 경기침체 확률이 50% 정도까지 올라간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